

한빛원전 하청노동자 “위험 외주화 끝내달라”

오늘 청와대 공공비정규직노조 ‘대통령과 소풍’ 참여 전국 300여명 함께 안전업무 외주금지·직접고용 호소

영광 한빛원전에서 근무하는 하청 노동자들이 16일 청와대로 향한다. 집권여당 대선공약이기도 한 “원전에서의 ‘위험의 외주화’를 조속히 끝내달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고, 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을 적극 지지한다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노동자들은 ‘비정규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사람답게, 여유있게 소풍을 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달라’는 의미를 담아 행사명칭을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의 인간선언 소풍, 대통령님 점심 같이 먹어요’라고 정했다.

15일 민주노총 서비연맹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공공비정규노조)에 따르면 한빛원전 하청노동자 70여명은 16일 오전 청와대로 소풍을 떠난다. 이날 낮 12시부터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열리는 공공비정

규노조가 준비한 ‘대통령과의 소풍’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한빛원전 하청노동자 뿐 아니라 고리원전(부산), 한울원전(경북울진), 월성원전(경북경주) 하청노동자 등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용역을 체결한 하청업체 노동자 300여가량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간접노동자들이 참여한다.

노동자들은 이날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점심을 먹고 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서 낭독한 후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노동자들은 편지에 문 대통령께 “원전에서 크고 작은 안전 관련 문제가 있어도 제대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원자력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빛원전 하청노동자들은 “우리도 원자력발전소 설비 정비, 전기·조명 작업, 경비, 청소 등 원자력발전소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하고 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통령께서 조속히 한수원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신분 안정을 포함한 처우개선에 나서달라”는 호소도 편지에 담기로 했다.

한빛원전에는 원전을 운영하는 한수원과 원전 정비를 주로 맡는 한전KPS라는 2곳을 원청사로서의 용역업체(하청) 14곳(한수원 11·KPS 3)이 있다. 여기에 소속된 공공비정규노조 조합원은 400명 수준이다.

원자력발전소 설비를 정비하는 등 원전에서 근무하지만 직접고용이 아니라서 임금, 복지 등 처우가 열악한데다, 매년 용역업체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해하는 등 신분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런 탓에 원전 안팎에서는 “원전에서 크고 작은 안전 관련 문제가 있어도 제대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원자력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성철 공공비정규직노조 전남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을 환영하고 또 환영한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공공부문 비정

규직 제로화 선언 이행을 위해서라도 원자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직접고용과 실질적 처우개선은 서둘러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진영완 공공비정규직노조 영광(한빛원전)지회장은 “우리 조합원들도 한수원 직원처럼 원전에서 설비를 고치고 전기 조 명도 손본다. 원전이 안전하게 굴러가도록 경비도 서고 쾌적한 여건에서 다들 근무하도록 청소를 하는 조합원도 있다”면서 “이러한 마음을 담아 대통령님께 편지를 띄울 것이다. 꼭 답장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원전 사고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원전 제로화 선언이 이뤄진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상 및 독립성 강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기구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를 내걸었다.

/김형호기자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8 | 해질 19:44 | 달 뜨기 11:08

뜨거운 금요일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은뒤 흐림	19/31	보통	맑은뒤 흐림	15/26
목포	맑은뒤 흐림	19/27	순천	맑은뒤 흐림	18/28
여수	맑은뒤 흐림	19/26	영광	맑은뒤 흐림	17/30
나주	맑은뒤 흐림	16/30	진도	맑은뒤 흐림	16/27
완도	맑은뒤 흐림	18/26	진주	차차흐려져 비	18/31
구례	차차흐려져 비	15/29	군산	차차흐려져 비	18/29
강진	맑은뒤 흐림	17/27	남원	차차흐려져 비	16/30
해남	맑은뒤 흐림	15/27	홍산도	맑은뒤 흐림	17/24
장성	맑은뒤 흐림	15/30			



비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강수량(mm)	강풍속(m/s)	강수량(mm)	강풍속(m/s)
서해	남~남서	0.5	남~남서	0.5~1.0	
남부	남서~서	0.5~1.0	남동~남	0.5~1.5	
남해	남동~동	0.5~1.0	남동~동	0.5~1.5	
서부	북동~동	0.5~2.0	북동~동	1.0~2.0	
면해(서)	북서~북	0.5~1.0	동~남동	1.0~2.0	

생활지수

- 경고
- 식중독
- 매우높음
- 자외선
- 보통
- 미세먼지

물때

목포	간조		만조	
	시각	수위	시각	수위
여수	11:45	06:23	18:37	00:59
	23:50	18:37	07:21	13:23

주간 날씨

17(토)	18(일)	19(월)	20(화)	21(수)	22(목)	23(금)
☀	☀	☀	☀	☀	☀	☀
18/32	19/32	19/33	19/33	19/33	19/32	19/30



웃음꽃 핀 장애인 체육대회 15일 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열린 '광주 북구 사회복지 종사자 한마음체육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학교폭력 가해자 재심청구시 피해자에 알려야”

권익위, 교육부 개선 권고

학교폭력 가해자가 전학·퇴학 등 처분을 받았다가 재심을 청구하면 피해자에게 알리고 진술기회를 주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학교폭력 징계 재심제도가 피해자의 대응권 및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교육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학교폭력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가해자는 시·도교육청의 징계 조정위원회에, 피해자는 시·도의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게 돼 있는 비효율적인 운영 형태도 일원화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초 전지 4주 상

처를 입힌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이 전학·퇴학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은 재심을 거쳐 각각 출석정지 10일, 학내봉사 10일로 감경처분을 받았다. 피해학생은 “재심청구 사실을 통지 받지 못했고, 진술기회도 없었으며 위원회의 감경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도 할 수 없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관할 교육청은 현행법과 제도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올해 3월 서을 종합민원사무소에서 교육부, 시·도, 시·도교육청, 학부모단체, 학교폭력에 방지민단체, 재심위원회 위원,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등 9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한빛원전 4호기서도 철판 부식 확인

원인 규명 없이 3번째 발생

한빛원전 1·2호기에 이어 4호기의 격납 건물 철판에서도 부식 현상이 발견됐다. 지난해 6월 한빛 2호기 격납건물에서 처음으로 철판부식과 미세구멍이 확인되면서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인 규명과 국내 가동 원전 전체를 상대로 검사를 확대하고 있으나, 원인 규명은 없이 부식이 현상이 확인된 발전소만 늘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한빛원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계획예방정비(정기점검)에 들어간 한빛 4호기 격납건물 철판의 상부 원형 돌과 하부의 경계면 높이 68m 지점에서 부식이 확인됐다.

부식으로 13곳의 철판 두께가 설계기준 6mm, 관리기준 5.4mm에 미치지 못하는 3.8~5mm 수준으로 나타났다. 격납건물 철판은 1.2m 두께의 콘크리트 외벽과 함께 방사성물질의 외부 누출을 막는 역할을

한다. 원전업계에선 라이너플라이트라고도 불린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정기점검 중인 원전에서 격납건물 철판 부식 현상이 확인됐으며, 지역주민과 소풍 채널인 한빛원전 민간환경경시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을 14일 설명했다”면서 “철판 두께 감소 현상 원인은 원전 건설시 콘크리트 타설 시공 방법 차이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외부 전문가와 함께 원인 규명 후 정비를 거쳐 재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한빛 2호기 정비 중 격납건물 철판에서 부식과 이로 인한 크기 1~2mm 미세구멍, 10% 두께감소 현상이 처음 확인된 것을 시작으로 한빛 1호기(부식된 곳 50개), 한울 1호기(경북울진 7개), 고리 3호기(부산 127개)에서도 잇따라 부식이 발견됐다. 한수원 측이 제대로 된 원인 규명을 못 하면서 안전성 논란에 휘말렸고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국내 전체 원전(25개 발전소)을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부식 현상이 확인된 발전소만 늘 뿐 현재까지 이렇다할 원인 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국립공원 ‘드론 순찰대’ 운영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접근이 어려운 산악 지대나 섬지역 국립공원의 효율적인 현장 관리를 위해 ‘국립공원 무인기(드론) 순찰대’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드론 순찰대는 광범위한 국립공원에 산재한 샛길과 위험 지역 등 접근이 어려운 해상·해안 국립공원 순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조직이다. 공단은 지난 14일 지리산국립공원에

서 무인기 순찰대 발대식을 열고 노고단, 성삼재, 화엄사 일원에서 드론을 띄워 순찰 및 단속 활동을 벌였다. 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총 45대의 무인기를 도입했다.

공단은 취사와 쓰레기 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와 멸종위기종 무단채집 및 반출 행위 감시에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다. /김형호기자khh@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우리집 태양광 발전소
우리집 전기는 만들어 쓴다 3,060W

가정용 태양광

시중가 600~650만원 월 4만 7천원부터

Hanhwa Q CELLS 한화큐셀
LG 전자모듈 25년 효율보증 12년 무상A/S
현대셀라

미세먼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도 전기요금 걱정마세요!

경시지붕형 주차장형 슬라브형

주택, 상가, 교회, 유치원, 모텔, 펜션(9kw까지 보조지원)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하가온에너지** 전국 A/S 1588-1543 상담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06(해가온빌딩 1층)